

##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 연구

손 방 원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생, 1저자)

김 한 샘

(연세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 한중 병렬 말뭉치에 출현한 현대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분석하여 어휘 범주와 의미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대중국어 ‘在’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개사는 의미 형성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중국어 문법 체계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며 한국어 격조사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많다. 개사는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품사들과 함께 사용되어야만 수식이나 보충의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개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전 정보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在’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중한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在’를 포함하는 중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여 각각의 어휘 범주와 의미 등을 비교하였다. ‘在’가 동사로서 쓰일 때 가장 많이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에 있다’이고, 중국어 부사와 주로 대응되는 것은 보조동사 ‘고 있다’였다. 중국어 개사 ‘在’는 장소의 의미를 가장 많이 나타내며 주로 ‘에’, ‘에서’의 순으로 대응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실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국어 개사 ‘在’가 ‘에’, ‘에서’와 대응할 때는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조 분석은 대조언어학이나 번역학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를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조 분석, 중한 대조, 병렬 말뭉치, 개사, 격조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102884)

## I. 머리말

이 논문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현대 중국어 ‘在’의 사용 양상을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개사의 용법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대조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어의 ‘개사’는 영어의 품사 체계에 맞추어 ‘전치사’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능과 본포의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김한샘(2016)에 언급된 동양의 언어 처리를 위한 국제 표준 문서 ‘Word segmentation of written text ISO 24614’와 같이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품사로 인정하여 ‘개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어 개사는 한국어 조사와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두 품사는 모두 문장 안에서 자립할 수 없으며 어휘적 의미가 약하다. 그러나 결합하는 대상과의 어순은 반대이다. 중국어에 자주 출현하는 개사로는 ‘在, 把, 给, 跟, 对, 向, 从, 比, 为, 替’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现代汉语频率词典』(1986)에서 제시한 「生活口语中前4000个高频词」에서 빈도 25로 개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在’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중국어의 개사와 한국어의 조사가 문장 안에서의 위치와 기능에 차이가 있어 언어 간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개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국어로 구사할 때 ‘대치 오류’와 ‘누락 오류’ 등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오류는 학습자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사·의미 구조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 범위의 차이도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 ‘在’의 어휘 범주와 의미를 정리하고 21세기 세종계획 중한 병렬 말뭉치를 분석하여 ‘在’가 어휘 구성 요소로 쓰인 경우와 독립적 어휘로 쓰인 경우에 대해 각각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각각의 품사와 의미 등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 교육 및 중한 대조 연구의 실증적 기초를 마련한다.

## II. 대조 연구를 위한 말뭉치의 활용

이 연구에서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중한 병렬 말뭉치이다. 말뭉치를 단어들로 말뭉치와

다국어 말뭉치로 나눌 때 다국어 말뭉치는 다시 비교 말뭉치와 병렬 말뭉치로 나눌 수 있다. 비교 말뭉치가 내용과 상관없이 각 언어의 텍스트를 비교할 수 있게 함께 모아 놓은 것이라면 병렬 말뭉치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대응시켜 구축한 말뭉치이다. 21세기세종계획의 병렬 말뭉치는 언어 정보 처리, 언어 교육, 사전 편찬, 대조언어학 연구 등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21세기 세종계획의 병렬 말뭉치는 병렬의 단위를 텍스트로 설정한 말뭉치이며 구체적인 정렬의 단위는 문장으로 삼았다. 21세기 세종계획의 병렬 말뭉치 중 중국어 관련 말뭉치는 원본과 번역본의 방향성에 따라 중한 병렬 말뭉치와 한중 병렬 말뭉치로 나누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한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21세기 세종계획 중한 병렬 말뭉치의 예이다. 중한 병렬 말뭉치는 중국어 말뭉치 파일, 중국어-한국어 정렬 파일, 한국어 파일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렬 파일의 내용을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 단위 대응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
<head id=1.1.h1>故乡</head><head id=1.1.h2>鲁迅</head>
<p id=1.1.p1><s id=1.1.p1.s1>我冒了严寒, 回到相隔二千余里, 别了二十余年的故乡去.</s></p>
<p id=1.1.p2><s id=1.1.p2.s1>时候既然是深冬; </s><s id=1.1.p2.s2>渐近故乡时, 天气又阴晦了, 冷风吹进船舱中, 呜呜的响, 从篷隙向外一望, 苍黄的天底下, 远近横着几个萧索的荒村, 没有一些活气.</s><s id=1.1.p2.s3>我的心禁不住悲凉起来了.</s></p>
```

〈중국어 말뭉치〉

```
<linkList><linkGrp domains="1 ; 1">
<linkGrp domains="1.1 ; 1.1">
<link xtargets="1.1.h1 ; 1.1.h1">
<link xtargets="1.1.h2 ; 1.1.h2">
<linkGrp domains="1.1.p1 ; 1.1.p1">
<link xtargets="1.1.p1.s1 ; 1.1.p1.s1 1.1.p1.s2"></linkGrp>
<linkGrp domains="1.1.p2 ; 1.1.p2">
<link xtargets="1.1.p2.s1 1.1.p2.s2 ; 1.1.p2.s1 1.1.p2.s2 1.1.p2.s3">
<link xtargets="1.1.p2.s3 ; 1.1.p2.s4"></linkGrp>
```

〈중국어-한국어 정렬〉

```

<head id=1.1.h1>고향</head><head id=1.1.h2>루신</head>
<p id=1.1.p1><s id=1.1.p1.s1>나는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천여 리나 떨어진 먼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s><s id=1.1.p1.s2>20여 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던 곳이
었다.</s></p>
<p id=1.1.p2><s id=1.1.p2.s1>마침 한겨울이라 그런지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하늘은
잔뜩 찌푸렸고 차가운 바람이 선창 안에까지 웅웅 소리를 내며 불어닥쳤다.</s><s
id=1.1.p2.s2>바람받이 휘장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뿌옇게 흐린 하늘 아래 여기저기
쓸쓸하고 황폐한 마을이 누워 있었다.</s><s id=1.1.p2.s3>아무런 생기도 느낄 수 없
는 풍경이었다.</s><s id=1.1.p2.s4>나는 마음이 슬프고 허전해졌다.</s></p>

```

〈한국어 말뭉치〉

### III. 선행 연구

중국어 개사 ‘在’의 구문 형식을 최초로 다룬 학자는 范继淹(1982)이다. 范继淹(1982)에서는 ‘在+NP’ 문형을 [在NP+S], [在NP+V], [V+在NP]의 세 가지 기본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윤철(2007)은 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출현 위치에 따라 문법적, 의미적 기능을 지닌 ‘在+장소명사’ 구조를 재분류하였다. 그는 ‘在+장소명사’ 구조를 ‘발생위치’인 술어선행구조와 ‘결과 위치’인 술어후행구조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말뭉치를 사용하여 ‘在’와 한국어 조사 ‘에’, ‘에서’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염준(2007)에서는 개사 ‘在’ 처소 의미를 중심으로 ‘在’가 동사에 상대하여 나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在’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지 동사 뒤에 나타나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말뭉치를 이용하여 ‘在’의 대응어를 추출하였는데 결과는 동사 앞에 위치하는 ‘在’는 주로 ‘에서’에 해당하고, 동사 뒤에 위치하는 ‘在’는 주로 ‘에’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在NP+V] 형식 : ‘在’와 ‘에서’로 대응됨

[V+在NP] 형식 : ‘在’와 ‘에’로 대응됨

통사론과 의미론에 입각하여 ‘在+처소’와 ‘처소+에/에서’의 의미구조의 차이를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게 하는 연구인 김수연(2018)은 ‘在+NP’를 위치와 문법적 의미에 따라 范继淹(1982)에서 분류한 [在NP+S], [在NP+V], [V+在NP]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에 대응하는 ‘에’와 ‘에서’와 비교하였다.

한경숙(2014)는 ‘在’, ‘于’의 의미자질의 차이 즉 변별적 자질을 고찰하는 연구로 성분분석과 의미분석 그리고 격문법 분석법으로 중국어 개사 ‘在’, ‘于’의 의미자질을 비교, 묘사하였고, 이들의 변별적 자질도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과 한국어 조사 ‘에서’와의 의미구조 대조 분석도 하였으며 이런 대조 분석을 토대로 ‘在’, ‘于’와 ‘에서’의 대응관계를 찾아보았다.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 관계에 관한 논의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조사 ‘에’, ‘에서’ 교수법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문화(2015)에서는 기존의 한중 사전에서 ‘에’, ‘에서’에 대응되는 중국 표현을 빈약하게 제시한 것을 비판하고 준구어 병렬말뭉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중국어로 개사, 명사, 접속사, 개사구, 부사 등으로 다양하게 대응함을 밝혔다. 유이(2017)에서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의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소, 시간, 원인, 대상, 조건·환경·상태, 제한된 범위, 진행의 방향, 더하여짐’의 등의 의미별로 예시로 추출하여 중국어 개사와 대응 관계를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어 개사 ‘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 ‘에’, ‘에서’와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통사론에 입각하여 각각의 문형 차이를 다루고 의미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문화(2015)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 병렬말뭉치를 분석해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한 결과는 일대일, 혹은 일대이의 관계가 아니라 훨씬 다양한 대응 관계로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어 ‘在’와 한국어의 대응 관계를 기존의 개사와 격조사 대응 논의를 포함하되 전체적인 분포부터 살펴 단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 IV. 중국어 ‘在’의 의미

중국어 ‘在’와 한국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在’의 품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 ‘在’의 의미는 『《现代汉语词典》(2005)』와 『《中韓大辭典》(1995)』, 『中韓辭典(2000)』의 체계를 주로 따를 것이다. ‘在’의 용법은 다양하여 주로 동사, 개사, 부사와 명사로 쓰인다. ‘在’가 동사로 쓰일 때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에 있다], [존재하다], [...에 달려 있다] 세 가지로 나타나며, 그중에 첫 번째 의미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 단독으로 문장의 핵심 서술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在’의 개사 의미는 동사로서의 첫 번째 의미 [...에 있다]로부터 유래한다.

‘在’가 품사 통용어이므로 기능과 의미가 다양하지만 핵심적 의미는 ‘존재하다’라 할 수 있다. ‘在’의 개사로서의 의미는 시간, 처소, 범위·한계, 조건·전제, 행위 주체 등인데 한국어의 대응어는 주로 ‘에서’, ‘에’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사로서는 문장에서 핵심 서술어와 같이 쓰이며 [하고 있다/하는 중이다] 의미로 나타난다.

개사는 중국어 품사 체계에서 독특한 성분으로 영어의 전치사, 한국어의 조사와 유사하면서도 변별된다. 개사는 문맥에서 중요한 보조 기능을 하며, 다양한 유형이 있다. 李順福(2014)에서 개사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 혹은 다른 품사의 앞에 쓰여 개사구를 이루며, 동사 앞에서 동작이 행해지는 시간·장소·방향·대상·원인·방식·배제·비교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중에 처소의 의미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처소는 공간 개념과 관련되어 문법적 의미인 ‘출발점, 목적지, 경로, 장소’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다음은 ‘在’의 사전적 의미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1> 『《现代汉语词典》(2005)』와 『中韓大辭典(1995)』에 제시된 '在'의 사전적 의미

품사	『现代汉语词典 (2005)』	『中韓大辭典 (1995)』	예시
동사	存在, 生存	존재하다, 생존하다	精神永存 정신이 영원히 존재하다
	表示人或事物的 位置	...에 있다[사람, 사물의 위치를 나타냄]	我今天晚上不在厂里 나는 오늘 밤에 공장에 없다
	留在	...에 머물러 있다, ...에 몸담고 있다	在职 재직하다
	参加(某团体), 属于(某团体)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속한다	在组织 조직에 속한다
	在于, 决定于	...에 달려 있다	学习好, 主要在自己努力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주로 개인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在'和'所'连用, 表示强调。 多与'不'连用	'所'와 연용(連用)되어 강조를 나타내며, 뒤에 대개 '不'가 이어짐	在所不惜 결코 아까워하지 않다
개사	表示时间, 处所, 范围, 条件等	...에(서), ...에 있어서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장소·범위· 상황을 나타냄]	事情发生在去年 이 일은 작년에 일어났다. 在礼堂开会 강당에서 회의를 열린다
부사	正在	지금[막] ...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雨在下 비가 내리고 있다
명사		성(性)	他姓在 그의 성은 '在'다

<표1>에 의하면 두 사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中韓大辭典(1995)』에서 『现代汉语词典(2005)』보다 '在'의 의미에 명사가 하나 더 추가했다. 즉 '在'가 명사일 때 사람의 '성'을 의미한다. 다음은 『中韓辭典(2000)』에 실린 '在'의 사전적 의미이다.

〈표2〉 『中韓辭典(2000)』에 제시된 ‘在’의 사전적 의미

	품사	뜻풀이
①		존재하다, 생존하다, 살아 있다, 있다 관련 어휘: [存在], [活着]
②	동사	...에 있다 *이미 알고 있어 생략되었 경우 외에는 반드시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와야 함 관련 어휘: [处在], [留在]
③		어떤 단체에 참여하다[속한다] 관련 어휘: [参加], [属于]
④		...에 달려 있다 ; ...에 있다 *대개 동사· 주술구를 목적어로 취함 관련 어휘: [在于], [决定于]
⑤		개사 동작의 시간, 처소, 범위, 조건의 형식으로 나타냄
⑥	부사	지금[막].....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관련 어휘: [正在]
⑦		所와 연용(連用)하여 무엇이 있음을 강조함(대개 부정문에 쓰임)

『中韓辭典(2000)』에 ‘在’가 개사로서 시간, 처소, 범위, 조건을 표현할 때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어법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이 아래 표와 같다.

〈표3〉 『中韓辭典(2000)』에 제시된 개사로서의 ‘在’의 의미

	뜻풀이	
시간	...에(시간을 나타냄) *일반적인 동사의 발생 시간은 [在...+시간사]의 형식으로 나타냄 *출현·소실 및 불명확한 동작의 발생 시간은 [동사+在...]의 형식으로 나타냄	班车在下午六点到达 통근 버스는 오후 6시에 도착한다 生在1999年 1999년에 출생했다



	뜻풀이	
처소	...에(서), ...으로[처소를 나타냄] *동작의 발생이나 사물의 존재 장소는 [在+처소사]의 형식으로 나타냄 *출생·발생·생산·거주 등의 장소는 [在...]를 동사의 앞이나 뒤에 모두 쓸 수 있음 *동작의 도착지는 [동사+在...]의 형식으로 나타냄	在休息室里, 大家谈得很高兴 휴게실에서 모두 즐겁게 이야기하였다 出生在北京 북경에서 출생했다. 病人昏倒在地上 환자가 땅바닥에 기절했다
범위	(내)에;...로;...상[범위를 나타냄] ...(하)에;...(으)로[在...下]의 형식으로 나타냄	他在学习上很努力 드는 학습에 있어서 매우 노력한다
조건	...(하)에. ...(으)로 [‘在...下’의 형식으로 조건을 나타냄]	在大家的帮助下, 他进步的很快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는 매우 빨리 진보했다

『中韓辭典(2000)』에서 ‘在’가 개사로서 시간, 처소, 범위, 조건을 표현할 때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어법을 자세히 제시하여 각 상황마다 적용하는 ‘在’의 개사구를 밝혀 놓아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표4>에 제시되었던 분류 기준에 따라 ‘在’의 의미를 분석하고 말뭉치에서 발견한 의미를 고려하며 <표4>의 분석 틀에 있는 11가지 의미를 기준으로 실제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4> '在'의 의미 기능

1	동사	생존하다
2		존재한다
3		...에 달려 있다
4	부사	동작의 진행
5	개사	장소
6		시간
7		범위
8		대상
9		조건
10		원인
11		수단/도구

## V.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표현 분포

21세기 세종계획 중한병렬말뭉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어 말뭉치에 출현한 문자로서의 ‘在’는 빈도가 395이었다. 이 중 ‘在’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現在(현재)’ ‘正在(하고 있다)’, ‘在壹起(같이 있다)’ 등과 같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인 것이 총 87회였다. 그리고 ‘在’가 들어가는 관용표현은 ‘心不在焉(정신을 팔다)’ 1회, ‘自由自在(자유롭다)’ 2회, 총 3회였다. 중국어 ‘潛在的’은 한국어 ‘잠재적’으로 바로 대응되지만 중국어 ‘現在’의 경우 한국어로 ‘현재’가 일상어보다는 형식적인 문어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이나 ‘이제’ 혹은 ‘현’과 대응되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지금’과 ‘이제’는 교체가 가능한 유의어이므로 적절히 구사하면 되지만 중국어에서 어휘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금’과 ‘요즘’을 변별하여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난도가 높다.

아래 표는 ‘在’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인 표현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표5〉 어휘 구성 요소 ‘在’의 한국어 대응 표현 분포

중국어 품사	중국어 표현	한국어 품사	대응어	빈도	비율
부사	现在	부사	지금	24	28%
			이제	5	6%
			현	2	2%
			요즘	1	1%
			무표지	6	7%
부사	正在	보조 동사	고 있다	10	11%
			고 계시다	5	6%
			무표지	12	14%
동사		문형	에 있다	1	1%
동사	存在	동사	존재하다	2	2%
부사	实在	부사	정말	1	1%
부사	潛在的	부사	잠재적	2	2%
개사구	在一起	개사	에	1	1%
			에서	1	1%
		부사	함께	1	1%
			있다	1	1%
		동사	무표지	2	2%
		在...时候	명사	때	6
		문형	고 있는데	1	1%
관용 표현	心不在焉		정신을 팔다	1	1%
	自由自在		자유롭다	2	2%
총계				87	100%

<표5>의 내용을 살펴보면, '现在'는 '현재, 지금'을 의미하여 중국어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요즘' 등이며 무표지도 있다. '지금'와 '이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각 비율은 28%와 6%이다. '正在'는 [하고 있다]를 의미하여 중국어에서 부사와 동사의 역할을 한다. 주로 부사로 쓰여 말뭉치 예문에서 28회 중에 27회로 나타나며 동사로 쓰인 것은 1회 나타났다. 부사로 쓰일 때는 보조 동사 '고 있다', '고 계시다' 그리고 무표지에 대응하며 동사로 쓰일 때는 문형 '에 있다'와 대응하였다. 동사 '存在'의 대응어는 한국어 동사 '존재하다'로 2회 나타났으며 부사 '实在'와 '潜在的'은 한국어 부사 '정말'과 '잠재적'에 대응하여 각 1회와 2회 출현하였다.

다음은 개사구와 관용표현이다. '在'를 포함하는 개사구가 해당 말뭉치에 '在一起'와 '在...时候' 2가지 나타났다. '在一起'는 [같이 있다]는 뜻이고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개사 '에', '에서', 부사 '함께' 그리고 동사 '있다'는 각 1회 출현했다. 개사구 '在...时候'는 '在'와 '时候'가 결합하여 개사구 '在...时候'로 형성되는 것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명사 '때'와 '고 있는데'이다. 시간 명사 '때'는 문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여 뒤에 '에'를 자주 생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어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 '在...时候'로 나타내어 시간명사가 개사 '在'와 '时候'의 중간에 위치한다.

- (1) ㄱ. 我以前在学校的时候, 上体育课也打过篮球啊  
     ㄴ.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에 농구를 해 봤어.
- (2) ㄱ. 我在看人们的时候, 储蓄科银行职员叫了我的名字  
     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예금계 은행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예문 (1)을 살펴보면 개사구 '在...时候'의 중간에 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 개사구의 중간에 오며 한국어에 '때'와 대응하였다. 예문 (2)에서는 앞 행동 '我看人们(사람들을 보고 있다)'와 뒤 행동이 '储蓄科银行职员叫我的名字(예금계 은행원이 내 이름을 부른다)'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사구 '在...时候'는 문형 '고 있는데'와 대응하게 된다.

〈표6〉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

중국어 품사	의미	한국어 품사	대응어	빈도	비율	
동사	생존하다	동사	생존하다	1	0.3%	
	존재하다	동사	계시다	3	1.0%	
			있다	2	0.6%	
		문형	에 계시다	4	1.3%	
	...에 달려 있다	조사	에 있다	5	1.6%	
			는/은	1	0.3%	
부사	동작의 진행	보조 동사	무표지	1	0.3%	
			고 있다	20	6.5%	
		의존명사	고 계시다	1	0.3%	
			는 것	7	2.3%	
			는데	1	0.3%	
어미	무표지	15	4.9%			
개사	장소	조사	에	88	28.6%	
			에서	58	18.8%	
			서	8	2.6%	
			에다	3	1.0%	
			을/를	4	1.3%	
			(으)로	1	0.3%	
			서는	1	0.3%	
			에는	1	0.3%	
	에다가	1	0.3%			
	시간	조사	에	7	2.3%	
	범위	문형	조사	에 있어서	6	1.9%
				에	11	3.6%
		어미	에서	12	3.9%	
			에는	1	0.3%	
			는데	1	0.3%	
	대상	조사	에서	1	0.3%	
			에게	1	0.3%	
			한테	1	0.3%	
			께	1	0.3%	
			이/가	1	0.3%	
	조건	조사	에	1	0.3%	
	원인	조사	에서	4	1.3%	
	수단/도구	조사	(으)로	2	0.6%	
에서			1	0.3%		
			(으)로	1	0.3%	
			무표지	30	9.7%	
총계				308	100.0%	

<표6>은 독립적인 단어로 기능하는 '在'가 포함되어 있는 예문 308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내용을 살펴보면, 중한병렬말뭉치에 독립적으로 나타난 '在'의 용례는 총 308이다. 그 중에 개사가 247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사는 17개, 부사는 44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 동사는 3가지 의미가 있으며 즉 [생존하다], [존재하다], [...에 달려 있다]이고, 각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동사 '생존하다', '계시다'와 '있다', 그리고 조사 '는/은'과 무표지이다. 부사로서 '在'는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며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보조 동사 '고 있다', '고 계시다'이고, 의존명사 '는 것'과 어미 '는데'이다. 이 중에 '고 있다'가 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사는 '在'의 주요 품사로서 전체에서 80.2%를 차지했다. 먼저 개사 '在'는 '장소'의 의미를 가장 많이 나타내며 '에'와 '에서'가 각각 28.6%와 18.8%를 차지하여 '在'의 주요 대응어임을 볼 수 있다. '서', '에다', '을/를', '(으)로', '서는', '에는', '에다가'가 나타났다. 시간 의미에서 한국어 대응어가 조사 '에'이고, 범위 의미에서는 문형 '에 있어서', 조사 '에', '에서', '에는'가 대응어로 나타났다. 그중에 조사 '에'와 '에서'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상 범위에서의 대응어가 조사 '에서', '에게', '한테', '께', '이/가', '에'가 있다. 조건과 원인 범위에서의 대응어가 '에서'와 '(으)로'이고, 수단/도구 의미에서는 '에서'와 '(으)로'가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무표지가 9.7%로 나타났다.

## VI.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 분석

### 1. 동사

동사는 '在'의 가장 오래된 품사로서 분석 대상 말뭉치에 나타난 '在'의 용례 308개 중 '在'가 동사로 나타내는 용례는 16개였다. 해당 용례에 대응되는 한국어 용례를 분석해 대응 표현을 추출한 결과 '在'의 동사로서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총 7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在'가 동사로서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의 문법적 범주 유형으로는 3가지 즉 동사, 문형, 조사가

있다. 단순한 동사 ‘생존하다’, ‘계시다’, ‘있다’ 도 있으며 앞에 격조사가 붙는 문형과 격조사도 있다. 높은 빈도수에 따라 나열하면 순서는 문형 ‘에 있다’, ‘에 계시다’, 동사 ‘계시다’, ‘있다’, ‘생존하다’ 그리고 ‘는/은’, ‘무표지’가 있다. 동사 범주를 살펴보면 ‘在’가 ‘생존’의 의미의 한국어 대응어는 역시 동사 ‘생존하다’ 그리고 ‘장소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있다’와 존대어 ‘계시다’이다. 동사 ‘있다’와 존대어 ‘계시다’를 앞에 조사 ‘에’로 붙여 문형으로 되는 ‘에 있다’와 ‘에 계시다’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격조사 ‘는/은’와 ‘무표지’도 한 번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예문과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 (3) ㄱ. 那时我的父亲还在世, 家景也好, 我正是一个小少爷  
     ㄴ. 그때 나의 아버님께서도 생존해 계셨고, 집안 형편도 좋아서 나는 말하자면 어엿한 집안의 도련님이였다.
- (4) ㄱ. 老师在吗?  
     ㄴ. 선생님이 계십니까?
- (5) ㄱ. 你打听打听那本书在谁的手里  
     ㄴ. 그 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 보아라.
- (6) ㄱ. 爷爷在家吗?  
     ㄴ.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십니까?
- (7) ㄱ. 不管发生什么事, 我都会在你身边  
     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 옆에 있어 줄게.
- (8) ㄱ. 铜山海水浴场最大的长处在于它的水深浅  
     ㄴ. 무엇보다도 동산해수욕장의 장점은 수심이 얕다는 것이다.
- (9) ㄱ. 停车场的面积在3000坪左右  
     ㄴ. 주차장은 3천 평 정도 확보되어 있다.

예문 (3)에서 ‘在世’는 ‘父亲(아버님)’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존하다’와 대응한다. 예문 (4), (5)의 핵심 의미는 ‘老师(선생님)’과 ‘那本书(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즉 선생님과 책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동사 ‘계시다’와 ‘있다’가 대응되었다. 예문 (6), (7)은 주어 앞에 장소명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在’가 장소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한국어 대응표현은 장소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在家’는 한국어에 ‘집

에 있다'와 대응하는데 문장의 주어는 할아버지 때문에 예문 (6)에서 한국어 존대어 '계시다'와 대응하게 되었다. 예문 (7)도 마찬가지로 장소명사 '옆' 뒤에 '에 있다'가 나타내어 중국어 표현 '在你身边'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네 옆에 있다'이다. 예문 (8)의 경우는 '在'가 동사로서 '...에 달려 있다'의 의미로 나타내어 长处(장점)은 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한국어에서 장점 뒤에 주격조사 '은'이 대응한다. 마지막 예문 (9)는 중국어에서 '3000 坪左右(3천 평 정도)' 앞에 '在'가 있지만 한국어에서 격조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대응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부사

'在'가 부사로 쓰일 때는 함께 쓰이는 동사로 표현된 '동작의 진행' 단 하나의 의미로 사용된다. 분석 대상 말뭉치에 나타난 '在'의 용례 308개 중 '在'가 부사로서 나타나는 용례는 44개였다. 해당 용례에 대응되는 한국어 용례를 분석해 대응 표현을 추출한 결과 在'가 부사로서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5가지가 있다. '-고 있다'가 20회, 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무표지' 15회, '-는 것'이 7회로 그리고 '-고 계시다'와 '-는데'도 1회로 출현하였다. 나머지 '-고 계시다'와 '-는데'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 (10) ㄱ. 我在叫你呢, 听见没有?  
 ㄴ. 내가 널 부르고 있잖아, 안 들려?
- (11) ㄱ. 爸爸在写信  
 ㄴ. 아버지께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 (12) ㄱ. 好像有人在叫你  
 ㄴ. 누가 널 부르는 것 같아
- (13) ㄱ. 谁在大吼大叫?  
 ㄴ. 누가 소리 지르는데?
- (14) ㄱ. 我在学习  
 ㄴ. 나는 공부를 합니다

예문 (10), (11)에서 '在'가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일 때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보조동사 '-고 있다'와 이의 존대 표현 '-고 계시다'이다. [행

동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10)에서 ‘我在叫你’ 문장에서 ‘叫(부르다)’가 서술어고, ‘你(너)’는 목적어다. ‘在’가 동사 ‘叫(부르다)’의 행위가 현재에 하고 있는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문 (11)도 마찬가지로 동작 ‘写(쓰다)’가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아버지는 뒷사람이기 때문에 ‘在’와 존대표현 ‘-고 계시다’가 대응하게 되었다. 예문 (12), (13)의 경우는 대응할 때 한국어에 명사화 형상이 나와 서술어 ‘叫(부르다)’가 명사형 ‘부르는 것’으로 되었다. 중국어에 [진행 중]의 의미로 나타내지만 한국어에 [진행 중]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은 ‘-는 것’, ‘-는데’, ‘일반형’으로 나타냈다. 마지막 예문 (14)에서도 ‘무표지’로 대응되는 이유는 앞에 예문과 비슷하여 한국어에 [진행 중]의 의미를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아 일반형으로 나타내었다.

### 3. 개사

‘在’가 독립된 어휘로 쓰일 경우 개사로 쓰이는 것이 가장 많고 보편적인 용법이다. 개사로 사용될 때 ‘在’는 ‘장소’, ‘시간’, ‘범위’, ‘대상’, ‘조건’, ‘원인’, ‘기준’, ‘수단/도구’ 등 다양한 의미를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중한 병렬 말뭉치의 ‘在’의 용례 308개 중 개사의 용례는 247개였고 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在’가 개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장소 의미다. ‘在’의 개사 용례 247개 중 장소를 나타내는 용례는 164개였고 개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4%다. 장소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 ‘在’가 개사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흔히 쓰인 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용법이 다양하여 해당 말뭉치 용례에서도 ‘在’의 한국어 대응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 ‘에’가 28.6%, ‘에서’는 18.5%로 모든 대응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在’의 대표적인 대응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 ‘을/를’, ‘에다’, ‘(으)로’, ‘서는’, ‘에는’, ‘에다가’ 등 총 9가지 대응어가 나타났다.



- (15) ㄱ. 哥哥坐在沙发上看电视  
 ㄴ. 형님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 (16) ㄱ. 今天想在家里学习呢  
 ㄴ. 오늘은 집에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 (17) ㄱ. 据说, 当时社会混乱, 贼群在雪岳山权金城定下匪巢, 在周围行盗, 陈田寺也受到其害, 逐渐没落, 最后废弃关闭  
 ㄴ. 전설에 따르면, 사회 혼란기에 도적떼가 설악산 권금성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신흥사와 진전사를 노략질하여 결국 폐사되었다고 한다.
- (18) ㄱ. 永别了熟识的老屋, 而且远离了熟识的故乡, 搬家到我在谋食的异地去  
 ㄴ. 정들었던 옛집과 영원히 이별하고,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 (19) ㄱ. 书放在教室里了  
 ㄴ. 책을 교실에만 두었다
- (20) ㄱ. 客人在屋子里坐著  
 ㄴ. 방안에는 손님이 앉아 있다
- (21) ㄱ. 把钉子钉在墙上  
 ㄴ.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
- (22) ㄱ. 我小时候在这里生活过  
 ㄴ. 나는 어릴 때 여기서 살았었어.
- (23) ㄱ. 在那里看不清楚  
 ㄴ. 거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예문 (15), (16)에서 ‘沙发(소파)’와 ‘家(집)’은 동사 ‘坐(앉다)’와 ‘学习(공부하다)’ 두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개사 ‘在’가 ‘에’와 ‘에서’와 대응되었다. 예문 (15)와 (16)에서 ‘在’ 장소 조사로서 나오는 문장은 한국어에서 조사 ‘에’와 ‘에서’로 구분해서 나타난다. ‘에’는 상태동사와 함께, ‘에서’는 행위동사와 함께 쓰인다. 예문 (15)에서의 ‘소파에 앉다’에서 ‘앉다’는 상태동사이고 예문 (16)에서는 ‘공부하다’가 행위로 나타나는 동사이다. 똑같은 장소를 표시하는 조사지만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대응하는 조사가 달라야 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에’와 ‘에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원인이다.

예문 (17)에서 개사구 ‘在雪岳山权金城’는 [在+장소] 형식에 속하는데, ‘雪岳山权金城(설악산 권금성)’은 도적떼가 활동하는 장소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在’가 ‘을/를’과 대응한다. 예문 (18) ‘밥벌이를 하고 있는 다른 고장’은 이사가는 도달점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在’가 ‘(으)로’와 대응한다. 예문 (19)에서 ‘교실’은 책을 둔 장소를 의미하여 예문 (20)에서 ‘방안’은 동작 ‘앉다’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다’와 ‘에는’와 대응한다. 예문 (21)도 비슷하게 ‘벽’은 ‘못을 박다’는 목표장소로 뒤에 ‘에다가’가 있으며 예문 (22)와 (23)에서 ‘여기’와 ‘거기’ 뒤에 격조사 ‘에’가 붙었는데 예문(23)의 경우 ‘거기’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 ‘에’ 뒤에 ‘는’도 같이 나타났다.

## Ⅶ.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21세기 세종계획의 중한 병렬말뭉치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중국어 개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에서’를 비롯한 한국어 조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동사, 부사로 쓰인 중국어 ‘在’의 한국어 대응 표현까지 포함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 범주와 의미의 대응 관계를 밝혔다. 이 결과는 대조언어학, 번역학 분야는 물론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在’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여 ‘在’의 한국어 대응 양상과 어휘 범주별, 의미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在’가 동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에 있다’이고, 중국어 부사와 주로 대응되는 것은 보조동사 ‘고 있다’였다. 중국어 개사 ‘在’는 장소의 의미를 가장 많이 나타내며 주로 ‘에’, ‘에서’의 순으로 대응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실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중국어 개사 ‘在’가 ‘에’, ‘에서’와 대응할 때는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향후 ‘在’와 대응 한국어 표현의 어휘의미적 양상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在’ 개사구의 위치에 따른 구문 유형 등 통사적 관점에서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이다.

## ■ 참고문헌

- 金承賢, 「개사 ‘跟’, ‘和’의 말뭉치 분석 및 대응되는 한국어 ‘와/과’의 의미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116, 2019.
- 김종호, 「현대중국어 離合式 ‘V+·的+O’ 구조 속 ‘誰的’의 의미역 문제 재론」,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 김한샘, 「한국어 언어 자원 분석의 표준 - 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 『배달말』 58, 2016.
- 서진현·박용진,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전치사의 등급 설계」. 『중국어교육과연구』 29, 2019.
- 염준, 「전치사 ‘在’와 조사 ‘에, 에서’의 대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문화,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국제어문』 65, 2015.
- 張龍, 「현대 중국어 ‘在’ 전치사 구문 부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진이(Choi Jiny), 「현대중국어 처소 개사의 다의성과 ‘정지-이동’ 공간사이클의 상관관계분석: ‘재(在)/종(從)/도(到)’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34(0), 2018.
- 한경숙, 「중국어 전치사 ‘在’, ‘于’와 한국어 조사 ‘에서’ 의미구조 대조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45, 2014.
- 范继淹, 论介词短语“在十处所”, 语言研究 01, 1982.
- 申敬善, 现代汉语“在”字句研究, 复旦大学, 2006.
- 齐焕美, “在”字句研究综述, 泰安师专学报 05, 2002.
- 沈家煊, “在”字句和“给”字句, 中国语文 02, 1999.
- 金宇同, 基于对外汉语教学的框式介词“在X上”研究, 辽宁师范大学, 2016.
- 张丹丹, 现代汉语“在+N+上/下”研究, 辽宁大学, 2016.
- 阮氏清香, 汉语“在NP”和“从NP”比较研究, 北京语言大学, 2008.
- 黄婉梅, “在”字句研究补述. 乐山师范学院学报 05, 2003.
- 宋真喜, “在”字句研究综述, 汉语学习 02, 1997.

- 陈星, 介词短语“在+处所”结构的分布类型及其语义研究, 文教资料 20, 2009.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五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大辭典』,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 李相度·南德鉉·朴慶松, 『中韓辭典』, 서울: 동방미디어, 200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nese ‘在’ and the Korean Counterpart

Sun, Fangyuan  
Yonsei University

Kim, Hansaem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orean counterparts of the modern Chinese ‘在’ that appeared in the parallel corpus of the 21st century Sejong Project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meaning and scope of us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modern Chinese ‘在’ is a means of forming meaning, occupying an important and special position in the Chinese grammar system, similar to the Korean particle, but with many differences. Chinese preposition cannot be a sentence component alone, and must be used together with other parts of speech to serve as a formula or supplement. In the sentence, ‘在’ is mainly combined with words indicating the meaning of time, range, direction, and status as well as the words that indicate the meaning of location.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of Chinese preposition and analyzed the meaning of ‘在’ based on information of dictionary and prior research. In addition, based on the parallel corpus of the 21st century Sejong Project, we analyzed the Chinese sentence containing ‘在’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entence to compare each part of speech and meaning. This contrasting analysis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contributes to reducing errors in usage of Korean particle by Chinese Korean learners.

Key Words : Contrastive analysis, Chinese-Korean Comparative Study, Parallel Corpus, Preposition, Particle

■ 논문접수일 : 2020. 02. 10

■ 심사완료일 : 2020. 03. 02

■ 게재확정일 : 2020. 03. 03